

2022 NEALLT, Columbia University

Promoting Students' **Active Reading** through a
Collaborative Annotation tool, Hypothes.is

Meejeong Song
ms296@cornell.edu
Cornell University

INTRODUCTION

Background of Advanced Korean C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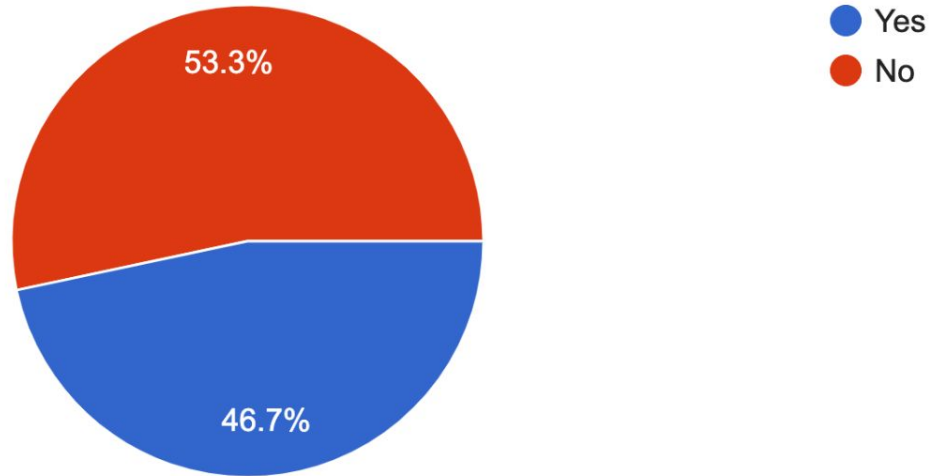
- Meets **3 times** (50 min. each) per week
- **Spring 2021**: 4 students
- **Spring 2022**: 6 students

Survey on Students' Needs

Advanced Korean Students

Were you born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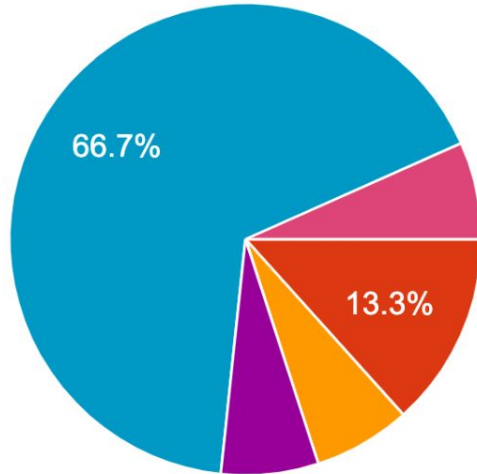
15 responses



Advanced Korean Students

Where did you learn Korean?

15 respo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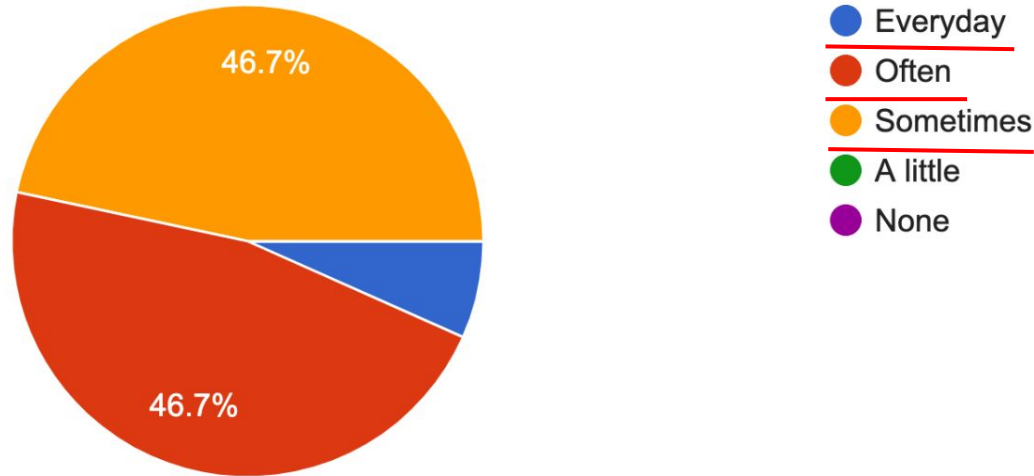


- N/A
- Self-study
- University (Cornell or other)
- University in Korea (Summer program, exchange student)
- A club or association
- Home or Korean school at a young age
- Private institute or tutor

Advanced Korean Students

How often do you use the Korean resources, such as newspapers, dramas, movies, or so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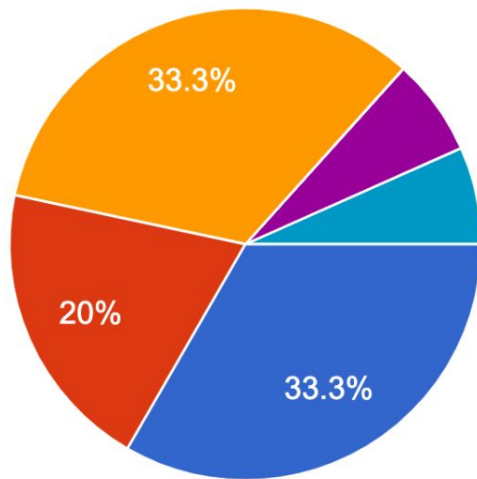
15 responses



Advanced Korean Students

Why did you choose this course? Mark one that most fits you.

15 respo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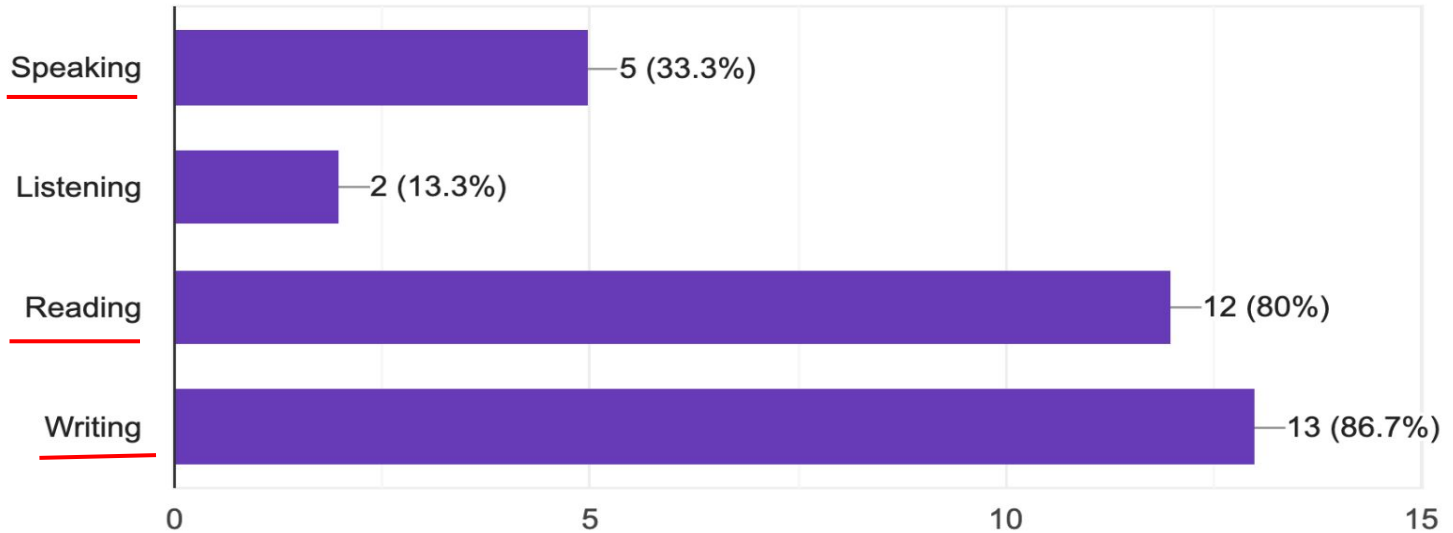


- Because I am interested in Korean tradition and society.
- Because I want to better understand Korean movies, dramas, songs or ne...
- Because I want to better communicate with my family and relatives.
- Because I want to better communicate with my Korean friends.
- Because I want to study or work in Ko...
- Because Korean is needed for my maj...

Advanced Korean Students

Which aspect of language skills do you want to improve m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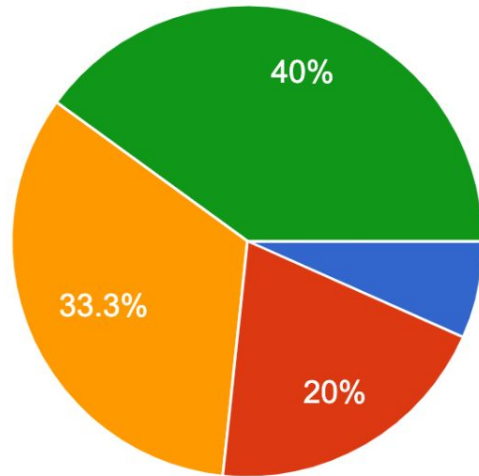
15 responses



Advanced Korean Students

Which content area do you want to focus more on?

15 responses



- politics
- economics
- social issues
- culture and tradition
- religion
- literature

How to meet students' needs?

01

Authentic Materials

Newspaper editorials covering various topics/contents

02

Active Reading

Collaborative annotation tool

03

Engaging Discussions

Participate in the synchronous class either online or in-person

04

Argumentative Writing

Choose a theme and write one's opinion with supporting ideas

01

Use of **Authentic Materials**: Newspaper editorials (stimulate analytical/critical thinking)

- **Entering students' proficiency level:**
Advanced Low ~ High
- **Aiming proficiency goal:**
Advanced Mid ~ Superior
- **ACTFL proficiency guidelines (Reading):** a wide range of subjects, specialized vocabulary, knowledge of the target culture, academic/professional reading of reasoned/analytic argumentation/supported opinion/hypothesis

02

Active Reading: Collaborative digital annotation

- **Instructional modes:**
Synchronous online (Spring 2021),
in-person (Spring 2022)
- **Promoting student engagement
in reading:** Collaborative digital
annotation (**pre-class activity**)

“Such collaborations involve **multiple students making annotations on a single digital platform** to deconstruct assigned course readings. Thus, they provide opportunities to **promote peer learning and active engagement**”

—K. L. E, 2021

6699

“According to Johnson et al. (2010),
the group mode of annotations
improved students’ learning outcomes
better than in the individual mode
when both used the online annotation
system.”

—recited in Yeh et al., 2016

6699

“The online annotations allow students to discuss the digital texts synchronously or asynchronously and **deepen their knowledge and comprehension** by accumulating information from many users”

—Glover et al., 2007

6699

3 Requirements When Annotating

RESPONSE

Answer one of the questions the teacher previously annotated or other students raised



OPINION/COMMENT

Leave comments on a part of the editorial statement/opinion



QUESTION

Raise one's own questions for discussion





[필동정답] 가슴으로 낳은 자식 "A Child Born from the Heart"

심윤희 논설위원 | 입력 : 2021.01.06 18:14:14

0

몇 해 전 아이를 입양한 한 지인은 입양기관에서 만난 아이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눈에 밝혀 다음날 바로 입양을 결정했다고 했다. **이제는 핏줄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아이와 묶여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최근 방송에 나온 차인표 씨는 "입양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흔히 입양은 '가슴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라고 한다. 생물학적 출산이 아니지만 가족이 되는 또 다른 길인 입양. 그 단어 앞에선 **언제나 뭉클함이 느껴진다.**

한국은 해외 입양이 많아 한때 '고아 수출국'이라고 불렸다. 혈연 중심 가족제도 탓에 입양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부터 국내 입양이 해외 입양을 앞질렀다. 2019년 입양아는 704명으로 **국내 입양이 55%, 해외 입양이 45%**다. 하지만 어떤 입양은 아이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지만, 어떤 입양은 참으로 비극적이다.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 숨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정인이를 살릴 수 있는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다는 점이다. 어린이집 교사와 주민, 소아과 전문의가 학대 의심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시민사회는 아동학대에 대해 감시와 신고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공적 시스템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방증이다.

입양기관의 부실한 사후 관리도 아쉽다. **입양특례법에 입양기관은 1년 동안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

Feb 14, 2021

이제는 핏줄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아이와 묶여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애완동물과 사물, 공간에 큰 사랑을 가져본 적이 있어서 핏줄보다 진한 사람이라는 말에 공감이 가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입양에 긍정적인 생각을 들려 드리면 많이 혼란 적이 있어요.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말라고 하시면서요. 젊은이들 사이에는 많이 받아들여진 일이지만 전 사회적으로 받아들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것같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OPINION/COMMENT

Feb 14, 2021

입양특례법에 입양기관은 1년 동안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양부모의 나이, 재산, 범죄 유무 등 자격 심사를 거쳐 법원이 입양을 허가

왜 1년 밖에 서비스 하지 않을까요? 1년에 한번이라도 5년 정도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

QUESTION

Feb 12, 2021

Show 1 more in conversation

Feb 14, 2021

아니요, 그래도 입양 절차는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얼마전 한국 대통령이 입양 후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입양 취소를 할 수 있게 바꾼다고 이야기한걸 들었어요. 정말 생동맞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배운게 없는 도화지 같은 존재인데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또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오히려 입양하는 부모님들을 더 조사하고 EQ 검사

[필동정답] 가슴으로 낳은 자식 "A Child Born from the Heart"

심윤희 논설위원 | 입력 : 2021.01.06 18:14:14 | 💬 0

The title of the article is "A Child Born from the Heart" and as you can guess, it's related to adoption. It was written in **January last year (2021)**, when there was a vile adopted child abuse issue arose in Korea.

한국은 해외 입양이 많아 한때 고아 수출국 이라고 불렸다. 발전 중심 가족제도 탓에 입양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부터 국내 입양이 해외 입양을 앞질렀다. 2019년 입양아는 704명으로 **국내 입양이 55%, 해외 입양이 45%**다. 하지만 어떤 입양은 아이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지만, 어떤 입양은 참으로 비극적이다.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 숨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정인이를 살릴 수 있는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다는 점이다. 어린이집 교사와 주민, 소아과 전문의가 학대 의심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시민사회는 아동학대에 대해 감시와 신고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공적 시스템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방증이다.

입양기관의 부실한 사후 관리도 아쉽다. **입양특례법에 입양기관은 1년 동안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

Feb 14, 2021
이제는 핏줄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아이와 묶여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애완동물과 사물, 공간에 큰 사랑을 가져본 적이 있어서 핏줄보다 진한 사람이라는 말에 공감이 가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입양에 긍정적인 생각을 들려 드리면 많이 혼란 적이 있어요.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말라고 하시면서요. 젊은이들 사이에는 많이 받아들여진 일이지만 전 사회적으로 받아들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것같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OPINION/COMMENT ↩
Feb 14, 2021
2
입양특례법에 입양기관은 1년 동안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양부모의 나이, 재산, 범죄 유무 등 자격 심사를 거쳐 법원이 입양을 허가
왜 1년 밖에 서비스 하지 않을까요? 1년에 한번이라도 5년 정도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

QUESTION ↩
Feb 12, 2021
4
Show 1 more in conversation
RESPONSE Feb 14, 2021
아니요, 그래도 입양 절차는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얼마전 한국 대통령이 입양 후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입양 취소를 할 수 있게 바꾼다고 이야기한걸 들었어요. 정말 생동맞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배운게 없는 도화지 같은 존재인데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또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오히려 입양하는 부모님들을 더 조사하고 EQ 검사

[필동정답] 가슴으로 낳은 자식 "A Child Born from the Heart"

심윤희 논설위원 | 입력 : 2021.01.06 18:14:14 0

Basically, the editorial provided information of the **Korean adoption system** with number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adoptees. Also, it indicated the **insufficient system** to check the welfare of the adopted children after adoption was made. And it concluded with **a worry** that this kind of issue would make it more difficult to on the adoption processes that may result in **less adoption rate**.

입양기관의 부실한 사후 관리도 아쉽다. 입양특례법에 입양기관은 1년 동안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

Feb 14, 2021
이제는 핏줄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아이와 묶여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애완동물과 사물, 공간에 큰 사랑을 가져본 적이 있어서 핏줄보다 진한 사랑이라는 말에 공감이 가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입양에 긍정적인 생각을 들려 드리면 많이 혼란 적이 있어요.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말라고 하시면서요. 젊은이들 사이에는 많이 받아들여진 일이지만 전 사회적으로 받아들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것같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OPINION/COMMENT

Feb 14, 2021
입양특례법에 입양기관은 1년 동안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양부모의 나이, 재산, 범죄 유무 등 자격 심사를 거쳐 법원이 입양을 허가
왜 1년 밖에 서비스 하지 않을까요? 1년에 한번이라도 5년 정도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

QUESTION

Feb 12, 2021
Show 1 more in conversation

Feb 14, 2021
RESPONSE
아니요, 그래도 입양 절차는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얼마전 한국 대통령이 입양 후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입양 취소를 할 수 있게 바꾼다고 이야기한걸 들었어요. 정말 생동맞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배운게 없는 도화지 같은 존재들인데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또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오히려 입양하는 부모님들을 더 조사하고 EQ 검사

[필동정답] 가슴으로 낳은 자식 "A Child Born from the Heart"

심윤희 논설위원 | 입력 : 2021.01.06 18:14:14

First, she **commented** on a phrase from the article **"love even deeper than the blood"**, she could understand this feeling relating it to her pet. And she shared her **negative encounter with the older family members** when they were talking about adoption. She believes that the older generations' perspectives against adoption **should be changed** in Korea soon.

정인이를 살릴 수 있는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공적 시스템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방증이다.

입양기관의 부실한 사후 관리도 아쉽다. 입양특례법에 입양기관은 1년 동안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

Feb 14, 2021
이제는 핏줄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아이와 묶여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애완동물과 사물, 공간에 큰 사랑을 가져본 적이 있어서 핏줄보다 진한 사랑이라는 말에 공감이 가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입양에 긍정적인 생각을 들려 드리면 많이 혼란 적이 있어요.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말라고 하시면서요. 젊은이들 사이에는 많이 받아들여진 일이지만 전 사회적으로 받아들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것같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OPINION/COMMENT

Feb 14, 2021
2
입양특례법에 입양기관은 1년 동안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양부모의 나이, 재산, 범죄 유무 등 자격 심사를 거쳐 법원이 입양을 허가
왜 1년 밖에 서비스 하지 않을까요? 1년에 한번이라도 5년 정도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
QUESTION

Feb 12, 2021
4
Show 1 more in conversation

Feb 14, 2021
RESPONSE
아니요, 그래도 입양 절차는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얼마전 한국 대통령이 입양 후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입양 취소를 할 수 있게 바꾼다고 이야기한걸 들었어요. 정말 생동맞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배운게 없는 도화지 같은 존재인데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또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오히려 입양하는 부모님들을 더 조사하고 EQ 검사

[필동정답] 가슴으로 낳은 자식 "A Child Born from the Heart"

심윤희 논설위원 | 입력 : 2021.01.06 18:14:14 0

몇 해 전 아이를 입양한 한 지인은 "오늘날 바로 입양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나온 차인표 씨는 '나'고 한다. 새도

Second, based on the information given from the article, she raised a question saying "Why does the system check the condition and welfare of the adopted children for only one year?"

양부모... 는 것은 정인이를 살릴 수 있는 여러 차례... 과 전문의가 학대 의심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시민사회는 아동학대... 신고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공적 시스템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방증이다.

입양기관의 부실한 사후 관리도 아쉽다. **입양특례법에 입양기관은 1년 동안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

Feb 14, 2021

이제는 핏줄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아이와 묶여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애완동물과 사물, 공간에 큰 사랑을 가져본 적이 있어서 핏줄보다 진한 사랑이라는 말에 공감이 가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입양에 긍정적인 생각을 들려 드리면 많이 혼란 적이 있어요.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말라고 하시면서요. 젊은이들 사이에는 많이 받아들여진 일이지만 전 사회적으로 받아들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것같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OPINION/COMMENT

Feb 14, 2021

입양특례법에 입양기관은 1년 동안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양부모의 나이, 재산, 범죄 유무 등 자격 심사를 거쳐 법원이 입양을 허가

왜 1년 밖에 서비스 하지 않을까요? 1년에 한번이라도 5년 정도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

QUESTION

Feb 12, 2021

Show 1 more in conversation

RESPONSE

아니요, 그래도 입양 절차는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얼마전 한국 대통령이 입양 후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입양 취소를 할 수 있게 바꾼다고 이야기한걸 들었어요. 정말 생동맞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배운게 없는 도화지 같은 존재들인데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또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오히려 입양하는 부모님들을 더 조사하고 EQ 검사

[필동정답] 가슴으로 낳은 자식 "A Child Born from the Heart"

Lastly, she **responded to a question** raised by another student. The question was **"Should we not make the adoption system harder since the adoption rate gets lower?"** She answered **no**, we should **strengthen the process** more to prevent adopted child abuse. **The recent news** announced that the government would let the adopted child's parents cancel their adoption, if they don't like the adopted child afterwards. She is against this idea and **suggested** to investigate and put more tests like EQ to the parents who want to adopt a child.

Feb 14, 2021
이제는 핏줄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아이와 묶여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애완동물과 사물, 공간에 큰 사랑을 가져본 적이 있어서 핏줄보다 진한 사랑이라는 말에 공감이 가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입양에 긍정적인 생각을 들려 드리면 많이 혼란 적이 있어요.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말라고 하시면서요. 젊은이들 사이에는 많이 받아들여진 일이지만 전 사회적으로 받아들일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것같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OPINION/COMMENT

Feb 14, 2021
입양특례법에 입양기관은 1년 동안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양부모의 나이, 재산, 범죄 유무 등 자격 심사를 거쳐 법원이 입양을 허가
왜 1년 밖에 서비스 하지 않을까요? 1년에 한번이라도 5년 정도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

QUESTION

Feb 12, 2021
in conversation
Feb 14, 2021
아니요, 그래도 입양 절차는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얼마전 한국 대통령이 입양 후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입양 취소를 할 수 있게 바꾼다고 이야기한걸 들었어요. 정말 생동맞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배운게 없는 도화지 같은 존재인데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또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오히려 입양하는 부모님들을 더 조사하고 EQ 검사

Why Hypothe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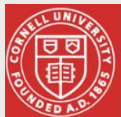
Easy to access:

- Canvas integration (Assignments → External Tool)
- Chrome browser extension

Easy to navigate/use:

- Simple functions (highlight, annotation, threaded responses)
- No training is needed

Canvas Integration_Assignments



Account



Dashboard



Courses



Calendar



Inbox



History



Commons



Help

☰ KOREA4402 > Assignments > Reading_가슴으로 낳은 자식

👤 Student View

Spring 2022

Home

Announcements

Assignments

Grades

Modules

Syllabus

Zoom

Quizzes

People

Discussions

Collaborations

Pages

Reading_가슴으로 낳은 자식

이 글을 읽으면서 해야 할 일 3가지

1. 올라가 있는 질문 중 하나를 골라 대답하기
2. 자기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을 묻고 싶은 부분에 질문 하나 올리기
3. 한 부분을 골라 자신의 생각/의견 간단히 쓰기
4. (optional)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있으면 online 사전 (<https://en.dict.naver.com>) 찾아서 뜻 쓰기

Grades are based on completion/participation.

This tool needs to be loaded in a new browser window

Load Reading_가슴으로 낳은 자식 in a new window

✎ Edit Assignment Settings

🔄 SpeedGrader™

Submitted: Dec 31, 2020 at 7pm

Assessment
Grade out of 10
10

Assignment Comments
[Download Submission Comments](#)

[필동정답] 가슴으로 낳은 자식

심윤희 논설위원 | 입력 : 2021.01.06 18:14:14 | 0

몇 해 전 아이를 입양한 한 지인은 입양기관에서 만난 아이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눈에 밝혀 다음날 바로 정했다고 했다. **이제는 핏줄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아이와 묶여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최근 방송에 나서는 "입양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흔히 입양은 '가슴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라는 생물학적 출산이 아니지만 가족이 되는 또 다른 길인 입양. 그 단어 앞에선 **언제나 몽클함이 느껴진다.**

한국은 해외 입양이 많아 한때 '고아 수출국'이라고 불렸다. 혈연 중심 가족제도 탓에 입양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부터 국내 입양이 해외 입양을 앞질렀다. 2019년 입양아는 704명으로 **국내 입양이 55%, 해외 입양이 45%**다. 하지만 어떤 입양은 아이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지만, 어떤 입양은 참으로 비극적이다.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 숨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정인이가 입양된 지 10년 가까이 있어 입양이라는 이름의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다는 점이다. 어린이집 교사와 주민, 소아과 전문의가 학대 의심 신고를 했으나 정인이를 입양한 양부모의 **책임 회피**로 결론 내렸다. 시민사회는 아동학대에 대해 감시와 신고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공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입양기관의 부실한 사후 관리도 아쉽다. **입양특례법에 입양기관은 1년 동안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양부모의 나이, 재산, 범죄 유무 등 자격 심사를 거쳐 법원이 입양을 허가했다고 해도 상호 적응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Feb 14, 2021

이제는 핏줄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아이와 묶여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애완동물과 사물, 공간에 큰 사랑을 가져본 적이 있어서 핏줄보다 진한 사랑이라는 말에 공감이 가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입양에 긍정적인 생각을 들려 드리면 많이 혼란 적이 있어요.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말라고 하시면서요. 젊은이들 사이에는 많이 받아들여진 일이지만 전 사회적으로 받아들일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것같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OPINION/COMMENT

Feb 14, 2021

입양특례법에 입양기관은 1년 동안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양부모의 나이, 재산, 범죄 유무 등 자격 심사를 거쳐 법원이 입양을 허가

왜 1년 밖에 서비스 하지 않을까요? 1년에 한번이라도 5년 정도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

QUESTION

Feb 12,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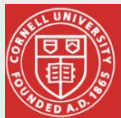
Show 1 more in conversation

Feb 14, 2021

RESPONSE

아니요, 그래도 입양 절차는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얼마전 한국 대통령이 입양 후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입양 취소를 할 수 있게 바꾼다고 이야기한걸 들었어요. 정말 생동맞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배운게 없는 도화지 같은 존재들인데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또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오히려 입양하는 부모님들을 더 조사하고 EQ 검사

Canvas Integration_Assignments



Account



Dashboard



Courses



Calendar



Inbox



History



Commons



Help

☰ KOREA4402 > Assignments > Reading_가슴으로 낳은 자식

👤 Student View

Spring 2022

Reading_가슴으로 낳은 자식

✎ Edit Assignment Settings

🔄 SpeedGrader™

Home

이 글을 읽으면서 해야 할 일 3가지

Announcements

1. 올라가 있는 질문 중 하나를 골라 대답하기

Assignments

2. 자기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을 묻고 싶은 부분에 질문 하나 올리기

Grades

3. 한 부분을 골라 자신의 생각/의견 간단히 쓰기

Modules

4. (optional)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있으면 online 사전 (<https://en.dict.naver.com>) 찾아서 뜻 쓰기

Syllabus

Grades are based on completion/participation.

Zoom

This tool needs to be loaded in a new browser window

Quizzes

Load Reading_가슴으로 낳은 자식 in a new window

People

Discussions

Collaborations

Pages

[필동정답] 가슴으로 낳은 자식

심윤희 논설위원 | 입력 : 2021.01.06 18:14:14

몇 해 전 아이를 입양한 한 지인은 입양기관에서 만난 아이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눈에 밝혀 다음날 바로 입양을 결정했다고 했다. **이제는 핏줄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아이와 묶여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최근 방송에 나온 차인표 씨는 "입양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흔히 입양은 '가슴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라고 한다. 생물학적 출산이 아니지만 가족이 되는 또 다른 길인 입양. 그 단어 앞에선 **언제나 뭉클함이 느껴진다.**

한국은 해외 입양이 많아 한때 '고아 수출국'이라고 불렸다. 혈연 중심 가족제도 탓에 입양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부터 국내 입양이 해외 입양을 앞질렀다. 2019년 입양아는 704명으로 **국내 입양이 55%, 해외 입양이 45%**다. 하지만 어떤 입양은 아이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지만, 어떤 입양은 참으로 비극적이다.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 숨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정인이를 살릴 수 있는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다는 점이다. 어린이집 교사와 주민, 소아과 전문의가 학대 의심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시민사회는 아동학대에 대해 감시와 신고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공적 시스템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방증이다.

입양기관의 부실한 사후 관리도 아쉽다. **입양특례법에 입양기관은 1년 동안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양부모의 나이, 재산, 범죄 유무 등 자격 심사를 거쳐 법원이 입양을 허가했다고 해도 상호 적응이 어려운 만큼 가정 방문 등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구멍이 많다.

Annotations 10 Page Notes

Feb 14, 2021

이제는 핏줄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아이와 묶여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애완동물과 사물, 공간에 큰 사랑을 가져본 적이 있어서 핏줄보다 진한 사랑이라는 말에 공감이에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입양에 긍정적인 생각을 들려 드리면 많이 혼란 적이 있어요.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말라고 하시면서요. 젊은이들 사이에는 많이 받아들여진 일이지만 전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아직 갈 길이 먼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Feb 14, 2021

입양특례법에 입양기관은 1년 동안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양부모의 나이, 재산, 범죄 유무 등 자격 심사를 거쳐 법원이 입양을 허가
왜 1년 밖에 서비스 하지 않을까요? 1년에 한번이라도 5년 정도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

Feb 13, 2021

정인이 사건의 본질은 입양제도도 아니라 아동학대다
입양제도의 문제가 맞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 사건이 친부모 아동학대 사건이었으면 아동학대를 걸러낼 방법을 찾아야하는 상황이죠. 그러나, 양부모가 아동학대를 한다는 건 입양제도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상황인건가요?
입양절차란 입양전, 입양당시 그리고 입양후에도 감시와 통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요? 고아원에서 고아 키울 자격을 양부모에게 무리준다고 양부모를 입양후 감시와 통제를 안한다. 그게 문제인건가요?

Chrome Browser_Extension



Obama: Ukraine war is a reminder of US complacency, taking democracy and 'rule of law' for granted

By [Dan Merica](#), CNN
Published 9:53 PM EDT, Wed April 6, 2022



MORE FROM CNN

-  The stories of our world, all in one place.
-  Sean Penn to Sean Hannity: 'When you step into a country of incredible unity, you realize wha...

Chrome Browser_Extension

The screenshot shows a Chrome browser window with a single tab titled "Obama: Ukraine war is a reminder...". The address bar displays the URL "cnn.com/2022/04/06/politics/barack-obama-putin-russia-ukraine-war/index.html". The page content includes the CNN logo, the article title "Obama: Ukraine war is a reminder of US complacency, taking democracy and 'rule of law' for granted", and the author "By Dan Merica, CNN". A group management menu is open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listing "Advanced Korean_SP22" as the current group. The menu options are: "View group activity", "Copy invite link", "Leave group", and "+ New private group". The "Copy invite link" and "+ New private group" options are circled in red. A tooltip is visible next to the group name, stating "this group. clicking the button." The bottom of the page shows a URL: "https://hypothes.is/groups/9VEQIREb/advanced-korean-sp22".

Obama: Ukraine war is a reminder of US complacency, taking democracy and 'rule of law' for granted

By Dan Merica, CNN
Published 9:53 PM EDT, Wed April 6, 2022

Advanced Korean_SP22

- View group activity
- Copy invite link
- Leave group
- + New private group

https://hypothes.is/groups/9VEQIREb/advanced-korean-sp22

Chrome Browser_Extension

The image shows a Chrome browser window with a single tab titled "Obama: Ukraine war is a reminder...". The address bar shows the URL "cnn.com/2022/04/06/politics/barack-obama-putin-russia-ukraine-war/index.html". The browser's top bar contains various extension icons, including "CorBox", "K1102-Sch", "K2210 Sch", "K4402 Sch", "K1102", "K2210", "K4402", "K1102 Sy", "K2210 Sy", "K4402 Sy", "찬양대", "CV", "KLP Events", "SP22_Enroll", and "Mail". The page content features the CNN logo and the word "politics" in a large font. Below this, the article title "Obama: Ukraine war is a reminder of US complacency, taking democracy and 'rule of law' for granted" is displayed in a large, bold, black font. The author is identified as "By Dan Merica, CNN" and the publication date is "Published 9:53 PM EDT, Wed April 6, 2022". A large photograph of Barack Obama is shown at the bottom of the article.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there is a "MORE FROM CNN" section with two article thumbnails. A red circle is drawn around the "Annotate" and "Highlight" extension icons in the browser's top bar.

Obama: Ukraine war is a reminder of US complacency, taking democracy and 'rule of law' for granted

By Dan Merica, CNN
Published 9:53 PM EDT, Wed April 6, 2022

MORE FROM CNN

The stories of our world, all in one place.

Sean Penn to Sean Hannity: 'When you step into a country of incredible unity, you realize wha...

03

Engaging Discussions: Live exchanges among students

- **8 topics of domestic and global issues:** adoption/child abuse, women and minority groups, history distortion, political/media influence on Capitol riot, attention-seekers and human nature, digital prison and law enforcement, COVID-19 depression, Atlanta Spa shooting and Asian Hate Crime
- **Instructional modes:** Participated in the synchronous class either **online** (Spring 2021) or **in-person** (Spring 2022)
- **Increased student engagement in discussion:** preparedness/readiness, live discussion, genuine interest, contributing voluntarily-researched information, overtime discussion **(in-class activity)**

A student's input of voluntarily-researched information



아시아마사지 업소 세 곳을 대상으로 한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검사관들이 피해 업소인 골드스파에서 주검을 옮기고 있다. 애틀랜타/EPA 연합뉴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16일 발생한 연쇄 총격 사건으로 한인 4명 등 8명이 숨진 가운데, 현지에서는 코로나19 발발 이후 급증한 **아시아계 겨냥 혐오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 및 혐오범죄를 연구하는 비영리단체 '아시아태평양계(AAPI) 증오를 멈춰라'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 1년간 미국에서 아시아계 주민을 겨냥한 증오 관련 사건은 4천여건에 달한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아시아계 주민에 대한 폭력 등 혐오범죄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이 단체에는 지난해 3월19일부터 지난 2월28일까지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3795건의 혐오사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68.1%는 언어폭력이고, 20.5%가 따돌림, 11.1%가 물리적 폭력이었다. 접수된 사건의 45%인 1691건이 아시아계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고, 뉴욕에서도 14%인 517건이 보고됐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사업장'이 35.4%로 가장 많았고, 길거리(25.3%), 온라인(10.8%), 공원(9.8%), 대중교통(9.2%) 순이었다.

SEM101-P

Mar 22

애틀랜타 경찰국의 공식적 성명은 혐오범죄가 아닐 가능성이 크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수많은 사람의 편견으로 물들어 있어서 사실을 밝히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에 해당하는 증거는 이렇다:

- 범인이 공격한 스파 장소 세 군데 다 애틀랜타 흥동가인 지역들에 있는 곳이다. 인터넷에 있는 남성 고객들이 남겨 놓은 평문을 보면 이 고객들이 스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랑 성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 찾았던 간수가 대부분이다.
- 16일 사건 범인도 세 군데 스파 중 두 군데를 꾸준히 과거에 갔다고 자기 자신이 보고했다.
- 범인은 사건 하루 전 밤에 부모님 집에서 쫓겨 나왔다. 범인의 부모는 아들이 외설물을 보는 것을 꾸준히 목격하다 드디어 그날 참지 못하고 쫓아냈었다고 말했다.
- 범인 자신이 증언한 바로는 포르노 중독된 자신 모습이 못마땅해서 자살하려고 그날에 총을 구매했다고 한다. 그러나 자주 다니던 스파를 공격하기로 나중에 마음을 바꿨다고 말한다.

이 사실들을 통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포르노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여성을 사람이 아닌 물건 취급하게 된다. 이 범인도 포르노를 보는 사람으로서 잘못된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려고 예전부터 스파를 찾아갔을 것이다. 부모님 거주지에서 퇴거 된 후, 범인은 자살을 생각하며 자신이 죽는 김에 그가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증오하는 스파 직원들을 타격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범죄 사건의 동기에 대한 성명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이 사건이 아시아인 혐오범죄일 가능성도 있지만, 여성 혐오범죄이거나 또 다른 동기의 범죄일 수도 있어서이다.

Less

04

Argumenta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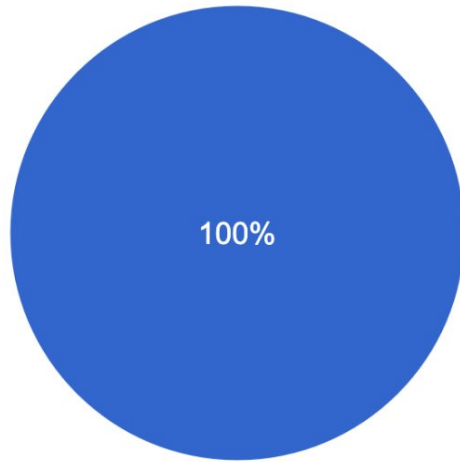
Writing: Choose a theme and write one's opinion with supporting ideas

- **8 compositions:** Submit an argumentative writing after each discussion (**post-class activity**)
- **Peer-learning:** First 4 compositions are graded by the instructor, but the latter 4 are peer-reviewed/rated using **FeedbackFruits app** integrated on Canvas
- **ACTFL proficiency guidelines (Writing):** present and support opinions by developing cogent arguments and hypotheses on a variety of social, academic, and professional topics

Student Survey (Spring 2021)

Was the collaborative reading helpful for improving your Korean?

4 responses



- Yes
- No
- Maybe

Student Comments (Spring 2021)

“저번 학기에는 collaboration reading이 없었고 대신 서로의 에세이를 피드백을 했는데, 콜라보레이티브 리딩이 **다 같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다. 같이 **의견을 공유**해서 반 친구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됐고 또한 반 **분위기가 친밀감**이 높았던 것 같다. 하지만 가끔은 **50분**안에 리딩을 토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적들이 있어 아쉬웠다.”

“It was helpful. I **enjoyed** the collaborative reading.”

“Pros: I was able to see **what my peers thought** and it allowed me to **prepare for class**. **Writing in korean** was also a learning experience.

Cons: It was **less of a discussion than real-life** but that was expected and this was a **very good sub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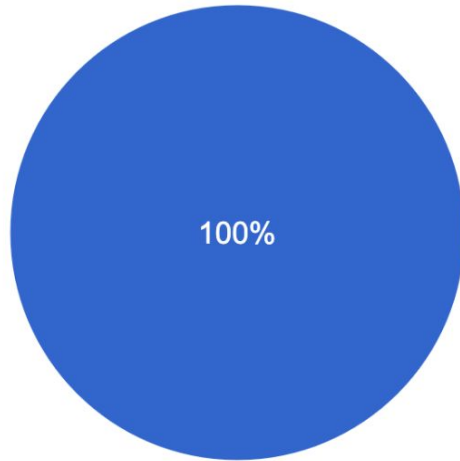
Suggestions: N/A”

“I enjoyed **reading and sharing thoughts** on other classmates' comments. It was enlightening to learn **how we think so differently whether we agree/disagree on different topics**. **Engaging in conversations** was definitely helpful and I believe I **learned the most** through collaborative reading than any other reading activities I've done in the past.”

Student Survey (Spring 2021)

As a tool for the digital annotation, was the Hypothes.is app good for collaborative reading?

4 responses



- Yes
- No
- Maybe

Student Comments (Spring 2021)

“구글 닥 처럼 한 페이지에 여러명이 의견을 적을 수 있어서 상대방의 의견을 보고 나의 생각을 정리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이번 학기에는 4명이 전부였기 때문에 복잡하고 겹치는 의견 없이 다채로운 의견들이 많아서 좋았던 것 같다. 만약 수업에 10명 이상이었으면 글을 파악하고 의견들을 파악하는데 힘이 들 것 같다.”

“It was nice to see **specific sentence / phrases** on the writing that other people had commented on.”

“Pros: I really liked how the app allowed all of us to **read and comment on the same document**. I enjoyed **replying to others** and **asking questions**.

Cons: Nothing really was that bad.

Suggestions: N/A”

“It’s very good for **annotating articles for debate**, and I can’t really think of a downside.”

Positive Outcomes

- Successfully fulfilled **students' needs** and **class goals/objectives**, following the **ACTFLs proficiency guidelines**
- **Learner autonomy**: students' proactive engagement on their learning process/progress
- **Interdisciplinary learning**: overlap on a variety of topics with different fields of studies relating to each student's major/knowledge
- **Peer learning**: share students' expertise about the topics and help enhance each other's comprehension
- Readiness to work as a **global citizen**: become aware of current world issues and feel responsible for them through meaningful learning experiences

Takeaways

- Created a **natural, dynamic learning environment** with the use of more **relatable topics**
- Felt **confident** to use all **authentic materials** for the Advanced course
- **Excited to come to class** for live discussions
- **Learned a lot from my students**



References

Glover, L., Xu, Z., Hardaker, G. (2007). Online annotation research and practices. *Computers & Education*, 49(4):1308-1320.

Johnson, T.E., Archibald, T.N., Tenenbaum, G. (2010). Individual and team annotation effects on students' reading comprehension, critical thinking, and meta-cognitive skill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6(6): 1496-1507.

K.L.E, Marissa (2021). Using an online social annotation tool in a Content-Based Instruction (CBI) classroom. *International Journal of TESOL Studies*, Vol. 3(2): 5-22.

Lipponen, L. (2002). Exploring foundations for computer-supported collaborative learning. In G. Stahl (Ed.), *Computer support for collaborative learning: Foundations for a CSCL community*. Proceedings of the computer-supported collaborative learning 2002 conference. 72–81

Yeh, Hui-Chin, Hung, Hsiu-Ting, Chiang, Yu-Hsin (2016). The use of online annotations in reading instruction and its impact on students' reading progress and processes. *ReCALL* 29(1): 22-38.

THANKS!

Does anyone have any questions?

ms296@cornell.edu

Meejeong Song
Cornell University



CREDITS: This presentation template was created by **Slidesgo**, including icons by **Flaticon**, infographics & images by **Freepik**